

중국 내 외자은행의 인민폐 대출 급증과 과제

1. 개요

- 최근 중국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중자은행의 대출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규제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외자은행의 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지난 9월 말까지 중국 내 외자은행의 인민폐 대출은 총 1,114억 위안으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509억 위안 증가
- 그러나 대출 확대와 함께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11월 말 기준 156.7%에 달하는 대출/예금 비율을 2011년까지 75%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는데, 예금 유치 확대가 어려워 비율을 낮추기가 어려움.
- 현재 외자은행은 은행간시장이나 모(母)은행으로부터 단기융자를 통해 대출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자금 확보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외자은행의 인민폐 대출은 쉽게 감소하지 않겠지만 자산부채관리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가 외자은행의 대출 확대를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점차 외자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음.

- 외자은행의 단기유자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민폐 예금 유치 확대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필수 선결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2. 외자은행의 인민폐 대출 급증

□ 2006년 12월 외자은행의 인민폐 영업 제한이 완전 철폐된 이후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중국 내 지점망이 많지 않은 외자은행의 인민폐 예금 유치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 대출 서비스는 점포망에서의 열세와 상관없이 빠르게 확대

- 상하이지역의 경우 2006년 외자은행이 인민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까지 증가

<표 1> 상하이 인민폐 예금 및 대출 성장률과 시장점유율 상황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중자은행	외자은행	중자은행	외자은행	중자은행	외자은행	중자은행	외자은행	중자은행	외자은행
예금 성장률	27.0	59.8	25.0	91.8	15.8	44.2	16.8	44.4	13.2	45.0
대출 성장률	26.0	-0.1	23.0	11.0	10.7	44.5	10.0	42.9	8.0	72.3
예금 시장점유율	98.8	1.28	98.1	1.9	97.7	2.3	97.1	2.9	96.3	3.7
대출 시장점유율	96.9	3.1	97.2	2.8	96.3	3.7	95.3	4.7	92.7	7.3

자료: 중국인민은행 상하이시점 <上海金融稳定报告2007>

<표 2> 상하이 외환 예금 및 대출 성장률과 시장점유율 상황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중자은행	외자은행	중자은행	외자은행	중자은행	외자은행	중자은행	외자은행	중자은행	외자은행
예금 성장률	7.1	23.2	-2.3	12.9	1.4	59.9	0.2	23.7	-0.3	35.6
대출 성장률	19.5	-2.1	53.9	18.7	7.1	37.7	2.81	24.0	8.1	15.3
예금 시장점유율	87.0	13.0	83.6	16.4	78.5	21.5	74.8	25.2	68.6	31.4
대출 시장점유율	55.7	44.3	61.2	38.8	51.3	48.7	45.1	54.9	43.6	56.4

자료: 중국인민은행 상하이시점 <上海金融稳定报告2007>

□ 2007년 하반기 정부의 각종 규제로 대부분의 중자은행 대출업무는 크게 위축된 상태

- 중자은행은 은행관리감독 규정에 따라 대출/예금 비율을 75%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확대에 제약이 존재
- 또한 예금지급준비율의 지속적인 상승(2007년 중 예금지급준비율은 모두 10번에 걸쳐 5.5% 포인트 상승, 12월 25일 현재 14.5%에 달함)으로 인해 예금 규모가 큰 중자은행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2007년 하반기에 들어서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금리 조정 대신 창구지도(窗口指导)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일부 은행의 경우 신규대출이 금지되었고 기타 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규모를 한도 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지난 9월 27일 중국인민은행과 은행관리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업성부동산대출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商业性房地产信贷管理的通知)》를 발표한 이후 중자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중자은행 대출업무의 위축으로 대출 수요가 외자은행으로 이동함으로써 외자은행 대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 요인으로 작용

- 외자은행의 경우 1) 아직까지 대출/예금 비율에 대한 제약이 없고, 2) 유치 예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금지급준비율 상승이 자금 유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출 확대가 용이
- 중국정부도 외자은행의 시장 지분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시장 진입 초기 단계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인민은행의 2007년 3/4분기 화폐정책집행보고(2007年第三季度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에 따르면, 2007년 9월 말까지 중국 내 외자은행의 인민폐 대출은 총 1,114억 위안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9억 위안 증가한 것

- 중국인민은행 상하이지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0월 기준 상하이지역 중자은행의 신규 인민폐 대출은 9월에 비해 105.3억 위안 감소한 79.2억 위안에 불과한 반면, 외자은행의 신규 인민폐 대출은 144.4억 위안으로, 9월 대비 2배의 증가세를 보임.
- 또한 11월 상하이지역 외자은행의 신규 인민폐 대출은 130.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9.7억 위안 증가하였으며, 11월까지 누적 대출규모는 834.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41.3억 위안 증가

3. 외자은행의 대출 급증과 관련된 문제점

□ 대출이 증가하면서 원래 높았던 대출/예금 비율이 더욱 상승

- 2006년 말 기준 외자은행의 대출/예금 비율은 129.3%로 이미 중국 은행의 평균 수준(68.46%)을 크게 웃돌고 있었음.

<표 3> 중국 은행업계 대출/예금 비율 변화 추이

	2003	2004	2005	2006
예금 (억 위안)	220,364	253,188	300,209	348,065
대출 (억 위안)	169,771	188,565	206,839	238,280
대출/예금 비율 (%)	77.04	74.48	68.90	68.46

자료: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 2006 연도보고

- 최근 외자은행의 인민폐 대출 증가율이 80%에 달하면서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대출/예금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상해지역 외자은행의 대출/예금 비율은 2006년 말 129.3%에서 2007년 9월 말 152.8%, 11월 말 156.7%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일부 외자은행의 경우 대출/예금 비율이 5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까지 외자은행의 대출/예금 비율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없었으나 2006년 11월에 발표된

《외자은행관리조례실시세칙(外资银行管理条例实施细则)》에 따르면, 외자은행은 2011년 12월 31일 전까지 중자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예금 비율을 75% 이하로 낮추어야 함.

- 비록 아직 4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으나 인민폐 예금 유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조절이 요구됨.

□ 현 외자은행의 대출자금 조달방식의 문제점

- 외자은행은 증가하는 대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 및 모(母)은행으로부터의 단기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은행간시장의 경우, 시장 자체가 아직 미성숙 단계인데다 예금지급준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중국 은행의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미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
- 또한 최근 은행간시장의 단기 금리가 큰 변동성을 보여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어려움.

□ 2007년 3월 발표된 《2007년 금융기구 단기외채 관리 문제와 관련된 통지(关于2007年度金融机构短期外债管理有关问题的通知)》에 따르면, 외자은행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단기외채를 2006년의 60% 수준으로 줄여야 함.

- 단기외채의 감소는 모(母)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혹은 국제시장을 통한 달러 차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는 외자은행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짐을 의미
- 따라서 현재 외자은행에게 인민폐 예금 유치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나, 영업망의 부족으로 예금을 빠르게 확대시키기도 어려운 상황

4. 향후 전망

□ 지난 11월 8일 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외자법인은행의 책임자를 소집하여 대출축소 및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하였음

- 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대출문제와 관련과 관련하여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외자법인은 행
까지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이는 정책 당국이 외자은행의 대출 급증을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음을 시사

□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을 펴고 있다고 해도, 인민폐 대출 확대를 포함한 외자은행의 발전 추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 대신 외자은행의 자금조달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다수 외자은행이 중국
내 화폐시장의 조속한 발전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바라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안정
적 자금 확보를 위해 인민폐 예금 유치 확대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 자료>

《第一财经日报》, “银监会警示外资法人行贷款风险”, 2007.11.12

《上海证券报》, “房贷‘搬家’外资行 监管加速‘窗口指导’”, 2007.11.14

《21世纪经济报道》, 外资银行在华生态调查报告 (二) “‘借钱度日’五年缓冲: 外资行未雨绸缪”
2007.11.16

《上海证券报》, “外资行偏好放贷”, 2007.12.11

(자료 정리: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 WTO 연구원 박사과정 이은경)